

# 사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사용과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거나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식의 부적절한 인사행태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선심성 예산사용의 경우 지방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지만,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사실상 아무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새해 감사에서는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인사발령 행태에 대해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

## '내 사람 심기' 인사 개선해야

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최근들어 자주 거론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란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라고 한다. 정부가 '내 사람 심기' 인사를 문제시하고 나선 것도 바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국민 정서는 '공무원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편에 선다는 것은 불법이며 적절치 못한 행위

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선거 이후 논공행상식의 인사발령이 이뤄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앙 정부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최대한 자신들의 성격과 가까운 인사를 등용하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드인사'라는 뜻은 나쁜 의미로 받

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다양한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는 중앙 정부와 달리 500여명 안팎의 공무원들 안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코드인사'를 많이 할 경우 행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데도 요직에 발탁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저해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고성군정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 사람 심기' 인사 행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해부터 이 부분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우리 고성언론문화의 새로운 창건에 즈음하여 관심이 있어, 자진 방문해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된다. 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을 도우려는 마음, 동정이 가는 심정, 힘을 더하겠다는 본심에서 우리나라 실행에 이르렀다.

동해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이글거리는 태양, 백두·금강산줄기의 정기 따라 만물상이 펼쳐진 금수강산 우리 고장, 기쁨진 복된 땅으로 가꿔가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이 수려한 경관의 보전·개발, 균형발전을 꾀하여 결실로 꽃피워 모든 이가 선망의 고장으로 찾아드는 터전으로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다. 조상의 얼을 생각하기로 한다.

### 힘을 더하겠다는 본심 우려나

문자 없는 선사시대 (유적 : 주거지, 조개무지, 분묘, 유물 : 석기-타제, 마제, 도끼, 족, 검, 창, 토기 : 빗살무늬, 무문토기, 후속, 붉은채색)를 거쳐, 역사시대(금석병용, 청동기, 철기)에 이르기까지 5000년 전이고 4~50만 년 이전의 긴 선사시대였고, 4대문명(나일,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유역)과 기타문명으로 변천하였다.

언어는 퉁구스족에 근간을 두며, 선주지관계로는 한족(韓族) 몽고족 터키족 즉 UralAltaic어족 계에 속한 예맥족(濊貊族)으로서 고조선 한나라인 맥국(貊國)이었다. 위치는 송하강 흑룡강 압록강 유역에 형성된 강원·함경에 걸쳐 활동한 선민(先民)임과 동시 한민족의 근간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참조)

사적(史蹟)을 보면 유서 깊은 우리 고장

##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 찬란한 고성언론 창건에 동참하자

이다. 우선 기풍(氣風)에 따라 고성문화 복지발전에 조건 없이 맡겨진 일이나 일을 찾아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본 고성언론문화 창건을 위한 윤승근(尹承根) 대표의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고귀한 발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격률로 받아들이는 글로 '행백반어구십'(行百半於九十)이라,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말로서 백리 길도 구 십리가 반이라 하는 말은 시작도 마지막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솝 이야기 중 토끼의 방심, 천 리길도 한걸음부터 용기 있게 시작하라는 뜻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 등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는 명언이다.

셋째로 화기애애(和氣霽霽)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고장 고성은 127마을마다 웃음꽃이 메아리쳐 생산적 복지로 이어져 살기 좋은 고성 위대한 고성을 만든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람 모인 곳에 인정 있고, 돈 있고, 음식 있고 물 건 있고 거래가 있다. '우자천려필유일득(愚者千慮必有一得 : 어린 우둔한 말 중 쓸

모 있는 말 하나)'이라는 말이 있으니 보감 실천하라.

넷째로 생산적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다. 오순도순 살아보자는 것은 알뜰살뜰 농·공·축·어·상(農工畜漁商) 30,190인이 어우러져 고성신문 정론에 이바지 한다는 것. 건전한 반성, 착실한 생활정보 홍보, 전국 넷트워킹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인으로서 자진 주인이 된다.

다섯째로 이 고장 주인(우리의 일군 467인과 주민)은 우리이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일을 다하여 풍요롭고 즐거운 나의 집을 건설하겠노라. '불사이불유식원(不仕而不有食愿)'이란 아무튼 생산적 일은 반드시 하여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 지방에 알맞은 생업을 신장 해 나아가기 위하여 산 바다 바람, 맑은 물 호수 바닷물 경관을 대상으로,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로 보전·개발과제이다. 우리의 손으로 조화롭게 가꿔 나가는 일이다. 끝으로 행운의 열쇠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가정의 건강·안락·평안, 국가사회의 안보·평온·평화 Road Map에 따라 복지를 이룩하는 것이다. '복희기망비분이득래(福喜冀冀 非分而得來)'라 했거늘 복은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은 행복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씀. 희망·기원이 이뤄져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것.

### 화기애애 명랑한 사회 조성

우리 다함께 하는 격을 새기자! '위선자는 천보지복이요 위불선자는 천보지화이니라(僞善者 報之福 僞不善者 天報之禍)', 선과 악의 선(線)은 행복이 드나든다는 뜻이므로 경계선을 넘나들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 공자말씀은 화복은 하늘이, 한소열은 후대에 기꺼이 선을 물려주는, 장자는 한시라도, 태공은 무슨 일이든, 마원은 평생을, 사마온공은 많은 덕을, 경행록에서는 은혜와 의리를 베풀라는 금언을 우리에게 남겼으니 고운 마음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 하겠다.

우리함께 고성언론문화 창건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동참합시다. 일귀내어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약력

- 성균관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취득
-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 경동대학교 겸임교수
- 동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부학장)
- 황조근정훈장 수훈
- 현재 경로당 초청강사
- 저서 : <축소 사회복지 이해의 편람> 등

### ◇편집국에서

○...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지만, 계절도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두어달 남짓 준비한 끝에 마침내 첫 작품을 내놓았다. 뿌듯함과 함께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 며칠 뒤면 설날이다. 학창시절 은사께서 명절을 앞두고 학이 오래사는 이유를 위장을 반만 채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과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옳은 말이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에게는 낯설게만 다가올 것 같아 착잡하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